

미국, OPEC에 원유 증산 요구

불안한 원유 재고수준 언급 증산 요청 ... 의견 점점 못찾아

미국이 11월 중순 재고 수준 감소와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원유 증산을 요청했다고 새뮤얼 보드만 미국 에너지부장관이 11월13일 발표했다.

보드만 장관은 로마에서 열린 에너지회의 기자회견에서 카타르와 알제리의 OPEC 대표들을 만나 “분명히 생산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선진국들의 원유 재고 수준이 5년 평균수준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OPEC은 우려를 함께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드만 장관은 “OPEC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불안한 원유 재고 수치를 언급했지만 반응은 원유를 더 수입하겠다는 고객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전혀 의견의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보드만 장관은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유가에 대한 미국 경제의 복원력은 대단했다”면서 “고유가가 미국의 수요를 둔화시켰다는 어떤 증거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우디는 원유 생산정책이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11월 17-18일 열리는 OPEC 정상회의의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OPEC 석유장관들은 12월2일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OPEC 정례회의에서 다시 만날 예정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인디애나 주 뉴올버비 연설을 통해 고유가와 주택,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 경제가 몇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제의 기반은 여전히 강력하고 복원력이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1/14>